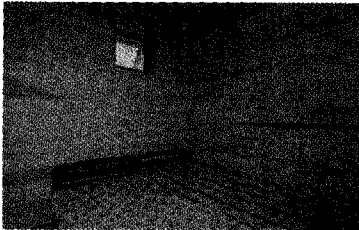


# 건자재 선정의 새로운 방법(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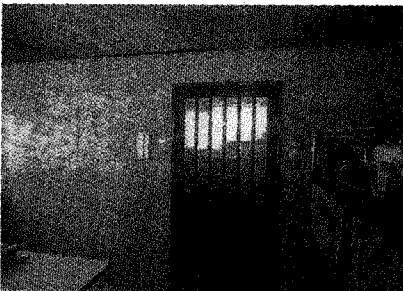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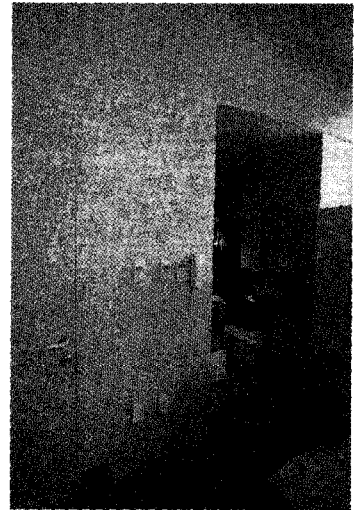
## 건강, 환경시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 건재선택의 실례 - 주택  
자연소재 중심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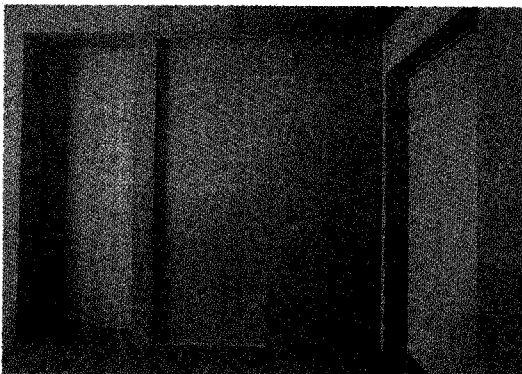
부엌옆의 벽에는 마감용의 OSB를 사용했다. 값이 싸고 포름알데히드의 방산량이 FCO합판의 4% 정도로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 "습기로 팽창했다 말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善養寺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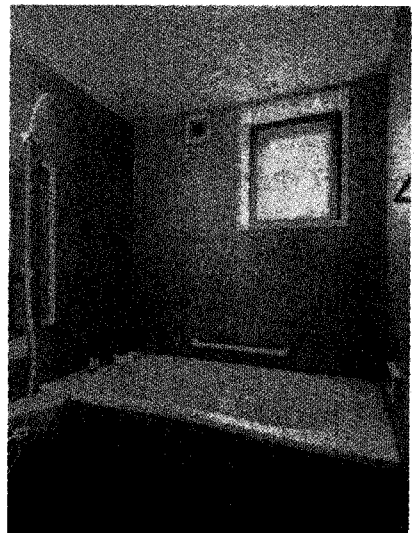
지하1층의 벽은 마감용의 OSB를 사용하여 기온의 차이를 잘 감지할 수 없다.



중간층의 벽은 도로마이토프라스타를 사용



1층에 있는 식당문



1층 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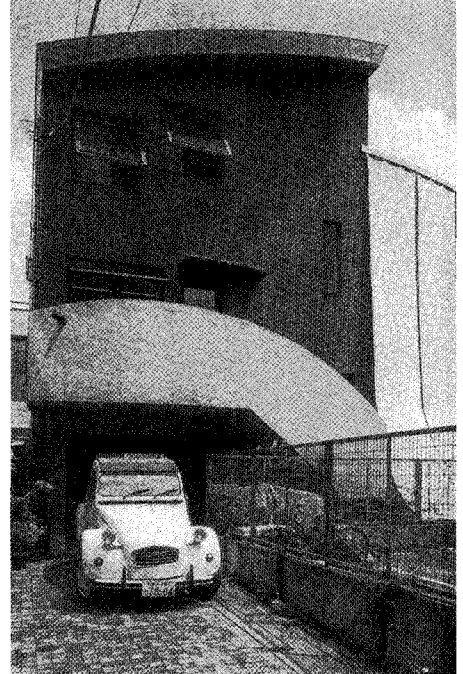
**장점과 단점을 알고 건축주에게 전달한다**

오거닉 테이블 대표 **善養寺 辛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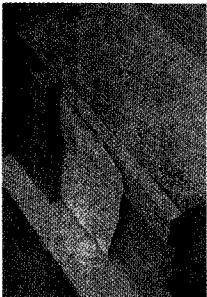
건강 전자재를 이용해 집을 짓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본 후 바다재만도 수십종류인 것을 알았다. 그 몇가지를 실제로 사용해 보고 자연소재를 원료로 한 재료는 종래의 재료와의 차이점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자연소재를 주성분으로 한 독일제의 접착제는 양생에 30여 시간이나 소요되고 그 사이 코르크가 물을 흡수하여 떠올라 잘 접착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보수에는 결국 화학물질을 함유한 독일제의 접착제를 사용했다. 화학물질에 민감한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무취타입으로 양생시간은 30분 정도로 시간이 짧았다.

2층의 거실겸용 식당에 사용한 테이블의 다리와 다다미에는 훈증(熏蒸)처리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했으나 여름이 되어 작은 벌레가 발생되었다. 안전한 소재라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집은 유지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물주라면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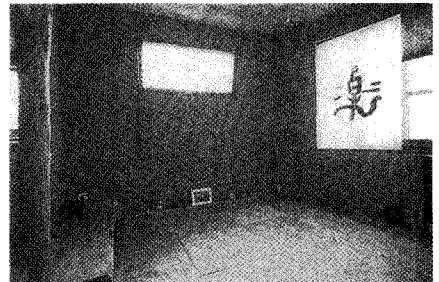


외벽은 콘크리트의 구체의 외측부분에 두께 20mm의 판을 길게 늘어 트렸다.



외벽의 단면규모

아들세대의 거실겸 식당. 환경 부하를 적게하는 관점에서 성 에너지에도 대처하는 구체축열을 채용. 페어페스트 콘크리트를 기본으로 하며 안쪽 벽은 옷과 한다토(半田土)를 혼합한 것을 칠했다.



3층의 아들세대 욕실. 하프 유닛 바스를 사용하고 벽과 천장은 나한백(羅漢栢)에 옷칠을 했다. 조습성이 있고 나무자체가 차가워 지지 않기 때문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수지(樹脂)의 벽이라면 비누물이 남은 곳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나한백의 방균효과로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다.(善養寺 대표)

세탁물을 말리는 장소가 되는 건조탈의실. 벽에는 조습기능이 있는 제올라이트를 칠한 보드를 발랐다. "메이커는 보드를 접착제로 바르다고 설명하나 그 접착제에서 화학물질이 휘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 채웠다."(善養寺 대표)

